

Carl Vuono

美 참모총장은 지난 4월 소련을 방문하였다. 이번 방문은 향후 미국과 나토 지상군의 재편성을 위한 초기조치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으로, 상당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Vuono 총장은 세계 어느 곳에도 즉각 개입할 수 있는 미국내의 전력과 유럽주둔 지상군은 소규모지만 강력하고 막강한 군대라고 이미 밝힌바 있다. 그러나 「소규모」라는 것은 많은 세부항목들을 생략한 여러 의미가 담긴 말이다.

장차 보다 적은 규모로 바뀌게 될 미 육군이 보유해야 할 정확한 전술특성에 관하여 많은 의구심이 생겨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분명한 해답은 없다. Vuono 총장은 美·蘇 두 국가가 동시에 군사력을 감축시킬때의 전술특성을 구체화시켜야 한다.

소련의 군사적 위협이 제3세계로 전환될 것인가와 함께 소련이 얼마나 빨리 재무장을 할 수 있으며, 세계 전역에 군대를 배치시킬 수 있는지의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또한 현재의 소련 지도자인 고르바초프가 얼마나 빨리 퇴진할 것이며, 민주주의와 非好戰性을 추구하는 현재의 소련 노선이 반대파에 의해 얼마나 빨리 역전될 수 있는지도 판단해보아야 한다.

이와함께 소련이 장거리 유도탄과 전자전에 중점을 두면서 작지만 강력한 군사력 건설을 위해 서구의 고도기술을 통한 군사력 증강책을 채택하려는 지와 지역분쟁이나 전쟁발발시 소련 동맹국 가운데 소련을 지원할 국가가 어느 국가이며, 어느 정도의 수준일지를 가늠해보아야 한다.

Vuono 총장은 물론 다른 미국의 고위층에서는 이러한 의문에 대처해 나가면서 미국의 군사전략을 현대화하며, 동시에 나토 재편성에 공헌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사회적으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평화잉여금」의 지출에 대한 예산토론이 美 의회에서 전개된바 있으며, 이것은 이러한 노력들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다.

Vuono 총장은 현재 예산이 책정된 3~4개의

전략현대화계획으로는 금년에 부시와 고르바초프가 합의한 군사력 감축하에서 미국이 신뢰성 있는 군사역지력을 보유할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방위장비 획득계획에서 육군 전술유도탄(ATACMS)과 개량 다연장 플랫폼, LHX/개량 정찰 및 공격헬기, 현대화된 근접공중지원기 및 C-17 수송기가 삭제된다면, 美 육군으로서는 개입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신속하고도 성공적인 전개가 어려울 것이다.

만약 앞으로도 예산이 소규모로 유지된다면 유럽과 기타 지역의 방위는 넓은 영역을 방어할 수 있는 FOFA(Follow-on Force Attack) 개념에 상당히 의존해야 할 것이다.

전략 및 전술 핵무기가 사라짐으로써 ATACMS가 미 육군의 강력한 전술유도탄이 될 것이며, 다연장 플랫폼은 더욱 빠른 기동력을 제

美 공군의 최신예 전투기인 F/A-18 호넷



공하게 될 것이다.

저고도 방공장비와 공대공 능력을 보유 하는 추세로 나가고 있는 헬기의 기술발달을 고려해 볼때, 21세기에는 현재의 헬기보다 더욱 레이다에 잡히지 않고, 높은 기동성과 함께 월등히 우세한 전자장비와 전술적인 가변성을 보유한 LHX 정찰공격헬기를 미군이 보유하지 않고서는 勝戰을 생각할수 없게 될 것이다.

현재 군은 저공공격에서 방향을 전환할수 있고 넓은 공격 각도를 가지며, 전술적 우위를 도모할수 있는 근접공중지원(CAS)기를 필요로 하고 있다. 그러나 근접공중지원기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또한 세계 도처에 병력과 화물의 효과적인 수송을 위해서는 C-17기가 필요하다. 그러나 C-17계획은 또다시 중단위험을 받고 있다.

美 의회의 의원들은 현재 LHX헬기나 F-16 근접공중지원기종 및 C-17기에 대해 상당한 의문을 가지고 있다. 그 이유는 이 3가지 계획이 취소될 경우 3백억불 정도를 삭감할수 있기 때문이다.

국방예산의 실질적인 감소추세에서 지상군 계획을 더욱 강력히 추진시키기 위한 조치는 결국 공군 및 해군의 전투장비 획득계획의 축소를 의미한다. 이는 공군의 B-2 스텔스 폭격기, ATF와 해군의 ATA, 공격잠수함 및 구축함, Peacemaker 및 Midgetman 유도탄과 같은 전략장비를 축소하는 것이다.

향후 5년간 이들 장비 획득계획을 축소할 경우 1천억불 이상이 절감될 것이다. 그러나 이들 장비는 상당한 가치가 있는 계획들이다.

또다른 강조사항은 국방부가 몇몇 방위운영 계획을 통해 얻을수 있는 약 3백30억불의 절감이다. '90~'95 국방계획은 운영과 유지, 인원 및 군사시설, 해외군사판매 등에서 감축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장비획득과 연구개발자금에서 소규모의 삭감도 있을수 있다.

레이건 대통령이 SDI계획에 높은 군사 우선권을 부여했을때 미국 방산

업체들은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SDI가 시작된 이래로 정부관련 연구사업중 67개의 계약이 외국업체와 체결되었다.

이 가운데 21개 사업은 TMD(Theatre Missile Defence) 연구개발과 관계된 것으로, 2억5백만 불에 상당하는 계약들이다. 그리고 10여개 이상은 5천80만불 상당인 SATKA(Surveillance, Acquisition, Tracking and Kill Assessment) 연구개발계획이다.

중요한 사업중 몇가지는 나토유럽TMD와 관련된 TMD연구사업이다. 여기에는 프랑스, 이탈리아, 서독이 관계하고 있고, 미국과 이스라엘의 Arrow 유도탄계획이 있다. Arrow 유도탄은 단거리 유도탄공격에 대한 방어능력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태평양 지역 분쟁에서 발생하는 SDI와 관련된 위협을 분석하기 위해 88년에 일본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였다. 해외기업들은 직접적으로 에너지무기 설계계획(예 : 지상용과 우주용 레이저장비)에 현재 참여하고 있다.

미국의 주계약업체들은 캐나다, 프랑스, 이탈리아, 서독, 영국, 이스라엘 및 일본의 업체들과 86개의 하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가운데 최소한 42개가 영국에 발주되었으며, 13개는 서독업체에게 주어졌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SDI계획에 외국기업의 참여를 허용하지 않았다면, 현재와 같은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SDI 참여업체들이 현재의 지출보다 수백만불을 더 지출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과 해외업체간의 국제 방산협력을 통해 SDI 참여업체들이 보여준 실질적인 비용절감과 Vuono 총장과 같은 군 수뇌부의 어깨에 무겁게 부과된 비용부담 사이에는 공통관계가 있다.

미국과 해외업체간의 협력사업 확대추세에 비추어 볼때, 美 육군 장비획득계획중 향후 5년간에 걸쳐 비용절감이 가능한 계획으로는 어떤 것이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

<Miltech 90/4>